

# 민주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 5파전

나종천·손재홍·조호권·진선기·윤봉근씨 등록

30일 토론회...초선 의원 움직임 경선 변수 될 듯

민주당의 광주시의회 의장 경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시의회를 이끌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쏟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7일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3선인 나종천(66·남구 3선거구), 손재홍(50·동구 2·), 의원과 재선인 조호권(49·북구 5·), 진선기(45·북구 1·) 의원과 윤봉근 당선자 등 5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소속 26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0명에 이르는 만큼 이번이 없는 한 30일 민주당 경선에서 뽑힌 후보가 사실상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이 당내 경선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나 의원은 “3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생활정치를 펼치는데 힘을 쏟아 사령받는 의회상 정립에 힘쓰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손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의회 구축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5대 의회는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의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변화와 개혁을 위해 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의회 구축에 힘을 쓸 것이다”고 출마 선언과 함께 지지세 확보에 공을 들이

고 있다. 진 의원도 28일 기자회견에서 의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윤 당선자는 ‘변화하는 의회상 정립’을 내걸고 의장직 도전에 나섰다.

광주시의회가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에서 초선과 중진의 원들,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집행부와 원만한 관계를 구축, 시정 발전에 힘을 쏟을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 지역 정치권의 요구다.

특히 민주당이 의장 후보로 등록한 의원은 부의장(2명)과 상임위원장(5명) 직책을 맡지 않기로 결정, 자칫 부의장과 상임부의장 모두 초선의 원이 맡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 의원들간 입장을 원활히 조율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30일 오후 의장 후보 토론회를 거쳐 민주당 의장 후보를 선출하고 광주시의회는 다음달 6일 신임 의장을 선출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경기부양·재정 건전성 원칙적 합의

토론토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G8 정상 “북·이란 핵무기 개발” 비난

글로벌 경기회복과 재정건전화, 은행세 도입 등 지구촌의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6일 캐나다 토론토의 메트로 컨벤션센터에서 만찬행사와 함께 열려 이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통으로 대처하기 위해 처음 열렸던 G20 정상회의는 지난해 4월 영국 런던,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데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롯한 20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내수진작을 촉구하는 한편 그동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과도한 재정지출을 단행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를 권고하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중국의 위안화 환율시스템의 유연화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에 관해서는 의견접근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유럽 각국은 재정건전성이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등 각국별로 경제여건과 재정상황이 달라 공통된 정책대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정상회담 개막에 앞서 티머니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금융위기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으며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속도가 국가별로 서로 다르다”면서 “우리는 모두 성장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G20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각) 토론토 숙소호텔에서 열린 정상업무만찬에 참석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별로 다른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G20 정상회담 장소인 토론토 도심의 메트로 컨벤션센터 주변에서는 이날 5000여명이 G20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일부 과격시위자들은 경찰차 2대를 불태우고 야구방망이와 망치로 건물 유리창을 부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 토론토 북부의 소도시 헨

츠빌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한 방법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경기부양과 재정건전화의 중요성을 친명하는 수준의 성명을 채택했다. G8 정상들은 그러나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과 이란을 비난하고 특히 천안함 공격에 대해 북한을 성토하는 입장을 성명에 담았다. /연합뉴스

## 인생열쇠

☎ 062-383-8982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시고 일 수 없는 장애가 생기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 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 대인동삼일부동산

☎ FAX 02-772-1772, 휴 010-802-2532  
(광주본점 신분행업 대리점 소방사건점)

###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율 빌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FAX 033-5211 0111-609-5221  
(삼무지구 이바돔 김지량 1층)

### 토지매매

위치 면적(㎡) 홀수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500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500 1,200만원

상무지구 826㎡ 250 1,000만원

상무지구 3,422㎡ 1,035평 800만원

동신동 22,000평 전답 10만원

나주군 15,300평 조증 35만원

동림동 4,468㎡ 1,352㎡ 350만원

##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동이 빌딩 1층)

### 첨단지구

상가 임대 : 60m 대로변 2,3층 450평(분할가능)

【권장업종 : 병원, 사무실, 학원 기타】

첨단지역 번화가이며 1층에 옷매장들이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학원, 사무실용도로 적합함

450평(조립,제조 회사 가능) 주차대수 30대

■ 공장 :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대수 보유하고 있음

###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복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 첨단지구 : 상업지역지, 모텔부지, 상가건물 모텔, 무인텔, 매도(다수보유)

■ 첨단지구 : 상가임대, 음식점, 음악회, 레스토랑(다수보유), 1층번화가; (못매장 약 60평 임대)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차·쇠고기 등 개방 압박... 절충 쉽지 않을 듯

### ■ 한미 FTA ‘새 논의’ 쟁점과 전망

#### 오바마 구체적 일정 지시 강한 의지

벼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측과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한미 FTA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일단 한국 정부도 미국측으로부터 새로운 논의에 대한 요청이 오면 이를 청취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두 나라간 FTA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한미 FTA의 쟁점 현안 범위와 해결방법 등에 대해 양측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운 논의’ 어떤 형태될까=이제 관심은 한미 간 ‘새로운 논의’가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어떤 현안 중심으로 이뤄질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간 ‘새로운 논의’는 당장 시작되는 어렵더라도 한 달 정도 후에는 착수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를 차지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방한 이전까지 논의를 마무리짓도록 목표시한을 정한 만큼 사실상 시간은 7~10월까지 4개월뿐이어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

새로운 논의 형태와 관련, 김 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재협상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면서 “미 의회를 통과하기 위한 부분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논의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자동차와 쇠고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핵심 인사들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비판세무역장벽 등을 집중 제기하면서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쇠고기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쇠고기 수입문제는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측은 FTA 비준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쇠고기 문제를 수시로 거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